산업통상부 지역에는 성장을, 기업에는 활력을 보도자료

보도시점 2026.3.30.(월) 11:00 < 3.31.(화) 조간 > 배포 2026. 3. 30.(월)

싱가포르 의약품 공급망 다변화, K-바이오 수출 기회로

- 산업부, 싱가포르 통상산업부(MTI)와 공동 웨비나 개최
- 글로벌 바이오 허브인 싱가포르를 거점으로 조달시장 진출 기회 모색

산업통상부(장관 김정관)는 싱가포르 통상산업부, KOTRA, 한국제약바이오협회와 공동으로 3월 30일(월)「싱가포르 의약품 공공조달시장 진출 지원 웨비나」를 개최하였다.

이번 행사는「한-싱 공급망 파트너십(SCPA)」의 후속 조치*로, 글로벌 바이오 허브인 싱가포르와의 공급망 협력을 강화하고 우리 기업의 해외 조달시장 진출을 실질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최근 싱가포르는 공급망 안정화 차원에서 조달국 다변화를 추진하고 있어, 우수한 품질과 신뢰성을 갖춘 우리 제약·바이오 기업들에게 새로운 시장 기회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 (한)산업부 - (싱)통상산업부간 공급망 파트너십 체결(24.11) → 바이오 산업을 우선 협력 분야로 선정, 공급망 다변화 및 기업간 협력 촉진 방안 논의 합의('25.5)

이번 웨비나에서 싱가포르측은 현지 의료 환경을 비롯해 상세 조달 절차, 입찰 요건, 제품 평가 기준 등 우리 기업의 진출에 필요한 핵심 정보를 공유하였다. 이날 행사에 참여한 우리 기업 20여 개사는 질의응답 세션을 통해 실제 입찰 가능성을 면밀히 점검하고, 현지 시장 진입을 위한 구체적인 요건을 확인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재근 신통상전략지원관은 "싱가포르 조달시장 진출은 우리 제약·바이오 기업의 시장 다변화와 공급망 재편을 전략적으로 활용하는 첫 사례가 될 것"

이라며, “정부는 앞으로도 SCPA와 같은 양자 공급망 협력 채널과 KOTRA의 해외 네트워크를 활용하여 틈새 시장을 지속 발굴, 우리기업의 수출로 연계될 수 있도록 지원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본 행사를 계기로 산업부와 KOTRA는 싱가포르 정부와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구축하여 우리 기업의 현지 시장 진출을 체계적으로 지원한다. 국내 유망 기업을 발굴하여 조달시장 맞춤형 컨설팅을 제공하고, 제품 등록 및 현지 유통사 매치메이킹 등 단계별 실무 지원을 이어갈 예정이다. 특히 진출 의사가 있는 기업을 대상으로 싱가포르측과 일대일 상담을 주선하는 등 실질적인 성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밀착 관리해 나갈 계획이다.

담당 부서	신통상전략지원관 신통상전략과	책임자	과 장	윤선영 (044-203-4870)
		담당자	사무관	원미경 (044-203-4871)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OPEN 출처표시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붙임 **싱가포르 의약품 조달시장 진출 웨비나 개요**

□ (**추진배경**) 싱가포르는 공급망 안정화 차원에서 공공 의약품 조달국 다변화 추진중, 공급망 파트너십 채널 통해 한국기업 관심 여부 타진

□ **(일　　시)** 2026년 3월 30일, 오후 2시 30분~ 4:15분 (화상)

□ **(참 석 자)** 산업부 신통상전략지원관, 20여개 한국 기업 실무자, KOTRA, 싱가포르 통상산업부 동북아 담당관, 조달 담당자 등

□ **프로그램**

시간	내용	비고
14:30 ~ 14:40	인사말 및 환영사	(韓) 산업부 이재근 신통상전략지원관 (싱) 통상산업부 탄 루 하이 동북아 담당관
14:40 ~ 16:00	**싱가포르 공공의료 조달시장 개요 및 기업 참여 방법**	
	1) 싱가포르 의료 환경 개요 2) 의약품 등록 및 규제 요건 3) 정부 의약품 보조금 및 시행 체계 4) 싱가포르 입찰/조달 요건 및 일정 5) 싱가포르 제약 제품 평가 기준	싱가포르 대표단
16:00 ~ 16:15	질의 응답	-